

# “광주 정신”으로 시작한 광주비엔날레 ‘광주 이야기’ 넘어야 세계적으로 성장”

## 이용우 전 광주비엔날레 대표

이용우(62)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지난 5일 제10회 2014광주비엔날레 개막과 함께 집을 썼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20주년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처럼 그의 사임으로 인해 광주비엔날레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

그는 지난 1995년 전시기획실장으로 제1회 광주비엔날레 창립을 이끌었고, 10주년인 지난 2004년 예술총감독으로 그해 행사의 큰 그림을 그렸다. ‘신정아 사건’으로 인해 2008년 상임 부이사장이 된 그는 지난 2012년 광주비엔날레재단 정관 개정으로 대표이사로서 자리를 옮겨 앉았다.

그동안 길게는 20년, 짧게는 6~7년간 안팎에서 광주비엔날레와 함께해 온 이 전 대표이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국제화’를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미술계 인사들과의 스킨십을 통해 광주비엔날레를 국제행사로 성장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 미술인들에게 등을 돌렸다는 평가도 받았다.

“지역 예술인들과의 스킨십이 부족했던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늘 미안했다. 내가 지역 예술가들의 생각을 덜 반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해냈다. 광주비엔날레는 물론, 디자인비엔날레, 폴리 등 작은 재단 인력으로 너무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 선을 정해야만 했다. 내가 국제 네트워킹을 거의 전담했다. 국제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해 애쓰다 보니 지역에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 한국 문화는 독특하다. 스킨십이 조직을 이끄는 해결책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좋은 점도 많다. 하지만 스킨십보다 전문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비엔날레를 프로야구에 비유했다. “프로야구 구단의 소유는 구단주지만 구단을 사랑하는 관중이 없으면 그 구단은 가치가 없다. 지역 예술인들을 존중하고, 비엔날레를 리드하는 전문기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시민사회의 사랑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리를 놓는 작업들이 중요하다. 그 부분은 노력했다.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고도의 지적 생산품이



## ‘메이드 인 광주’ 중 국제 경쟁력 최고 지역 예술인과 소통 소홀 가장 아쉬워 재단-광주시 20년 동반자 관계 유지

다. 하나하나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시민들도 현대미술이 이해하기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광주가 고도의 지적 생산품을 갖고, 또 그걸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이 전 대표이사는 제1회 광주비엔날레 창립 때부터 ‘성공’과 ‘성장’을 확신했다. 그는 ‘의향’과 ‘예향’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광주에서의 광주비엔날레는 ‘속명’이라고 표현했다. 그 때문에 광주비엔날레가 단순한 미술 전시장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미학적 담론이 어우러진 토론의 장이었다고, 그것이 곧 광주비엔날레의 고수 성장의 토대가 됐다는 의미다.

“20년간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하고 기여한 분이 참 많다. 나는 정말 그중의 한 사람일 뿐이다. 또 매회 행사 때마다 국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정부와 20년간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던 광주시에는 감사한

다.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다른 훌륭한 분이 와서 채우고, 다른 차원에서 발전시키는 바란다. 단, 단순한 미술전시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 광주비엔날레는 마당이 다. 토론하고 생산하는 곳이다. 또 광주비엔날레가 수지타산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광주를 비롯해 타 비엔날레에 대한 예산을 N분의 1로 분배하는 데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내년 6월까지 임기였던 그는 20주년 특별프로젝트에서 흥성담 작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해 논란이 되자 사퇴를 결심했다. 그는 사퇴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라고 했다.

“올해 연말쯤 사퇴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른 전문가가 비엔날레를 발전적으로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나는 운장이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정부와 20년간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던 광주시에는 감사한

여할 뿐이라고 믿고 있다. 비엔날레는 어떻게든 변할 것이다. 잘 나아가야 한다. 좋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양질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윤 시장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중요하다. 그분이 잘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이사 사퇴와 함께 윤 시장도 당연직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와 명예 이사장으로 자리를 바꿔 앉는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2007년부터 명예 이사장을 없애고 시장이 이사장을 맡아왔다.

“윤 시장이 큰 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큰 변화가 올 것이다. 하지만 명예 이사장도 맡지 않게 되면 비엔날레와 광주시의 20년간의 동반자 관계가 깨지게 된다. 그런 바람직하지 못하다. 광주비엔날레는 어떻게든 광주시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는 광주가 광주에만 갇혀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광주비엔날레에서도 광주의 이야기만 해서는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는 광주 정신을 세계 속의 가치로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정신을 기반으로 창설됐다. 광주정신이 깊고 넓은 만큼 비엔날레도 넓고 깊게 성장하였으면 좋겠다. 광주정신이라는 광주의 언어를 가지고, 세계의 공통언어를 만들어야 한다. 단 지나친 지역주의적 태도는 외부세계로부터 적대감을 부르게 된다. 또 글로벌리즘에 대한 맹신은 시민사회로부터 소외를 부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광주를 소재로 담지 말고, 주제로 담았으면 한다. 광주비엔날레는 세계 속에서 경쟁하고 있다. 메이드인 광주 제품 가운데 가장 국제적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재 다른 자리로 옮겨나 할 계획은 단 1%도 없다. 당분간 강진과 서울을 오가면서 비엔날레,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책 2권을 쓸 계획이다”며 “나는 광주가 키워낸 광주인이므로 작은 곳에서도 광주를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이사의 퇴임식은 12일 오전 광주비엔날레재단 3층에서 열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핫한 동네’ 동명·서석·장동 한달간 아트 페스티벌 속으로

13~14일 ‘트렁크 틴마켓’  
13~10월 14일 카페 전시회

요즘 광주에서 가장 ‘핫’한 동네 중 하나가 동명동, 서석동 일대다. 오랜 만에 들 때마다 아가자기한 커피숍과 갤러리 카페, 문화공간들이 새롭게 들어서고 있다.

각각의 공간에서 개별 행사들이 열리는 하지만 다양한 장소를 엮어 작은 축제같은 게 열린다면 어떨까 싶었는데 전시와 아트마켓이 어우러진 행사가 마련됐다. 프로젝트팀 CF1과 광주학부모브런치협동조합이 함께 준비한 첫번째 ‘트렁크 틴(Teen) 페스티벌’이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카페와 함께 학원가가 몰려 있어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점을 감안, 청소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 물론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둘러볼 수 있다.

행사를 주최한 CF1(위원장 이용우)은 ‘도시의 문화를 창조하고 소통하는 옴의 청소년 축제’를 만들기 위해 문인 동명동 주민협의체로 카페와 학원, 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과 사업체 대표들로 구성돼 있다.

행사는 크게 갤러리 카페에서 열리는 전시회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트렁크 틴 마켓으로 구성된다.

초고생들이 참여하는 트렁크 틴 마켓은 13일(오후 3시~6시), 14일(오후 3시~6시) 서석초등학교 정문 앞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다. 전문 아트 셀러인 DNA 페이퍼 토이, 좋은 디자인 태피, 바코드 1989, 맥거핀, 손글씨 고 작가 등도 함께 참여한다.

‘동명갤러리카페 삼인 삼 전’도 눈길을 끈다. 오일지키피, 창문, 스토아 어바나, 플로리다, 소노 등 동명동 카페 10곳과 이혁 작가가 10명의 작가가 만나 한달간 전시회를 갖는다. 최근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동명동 카페 거리에 유입되는 점을 착안해 마련한 행사다. 스텝프에 10개 갤러리 카페를 위주한 청소년들에게는 업주들이 제공하는 커피, 음료 쿠폰을 제공하여 문화체험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번 축제와 함께 발간된 광주 카페 로드(동명동·서석동) 리플렛을 받아 보면 이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카페 정보를 만날 수 있다. 지도를 받아 가지고 30분 코스(카페로드), 1시간 코스(곰목 탐방), 2시간 걷기 코스(문화 탐방)를 직접 걸어볼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동명동 갤러리 카페 스토아 어바나.

## 박물관에서 듣는 재즈 선율

### 내일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13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재즈밴드 ‘로로캄보’를 초대해 ‘Jazz in museum’ 토요 콘서트를 개최한다.

공연을 맡은 재즈밴드 ‘로로캄보’는 실용음악 악기연주자와 관악전공생들이 모여 구성된 연주팀으로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일본 등에서 다양한 공연을 하면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 OST ‘Over the rainbow’, 재즈 색소폰 연주자 그로버 워싱턴 주니어의 ‘Just the two of us’ 등 9곡을 기타, 베이스, 드럼 등



의 연주로 들려준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이날 오후 3시 40분까지 입장하면 된다. 무료 공연. 문의 062-570-7012.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공연

### 오늘 광주아트홀

문화공유플랫폼 ‘라이프매뉴얼’이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아트홀에서 새로운 형식의 클래식공연 ‘델리클래식’을 선보인다.

맛있는 클래식이란 의미의 ‘델리클래식’은 일반인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재미와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공연형 강좌이다.

델리클래식은 라이프매뉴얼과 젊은 클래식 그룹 ‘친친 클래식’, ‘카펠라 앙상블’(사진)이 공동으로 기획한 공연으로 관현악앙상블의 라이프브주와 함께 지휘자의 해설이 더해진다.

이번 ‘델리클래식’은 ‘리더를 말하다’를



주제로 대중들에게 크게 인식되지 않았던 지휘자라는 존재와 시대의 지도자들을 엮은 이야기와 음악을 들려 줄 예정이다.

무료 공연. 문의 070-8285-317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경남 합천으로 떠나는 역사문화기행’ 참가자 모집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6일까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광주전남문화유산재단은 오는 20일 하루 일정으로 진행되는 ‘경남 합천으로 떠나는 역사문화기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천년을 이어온 기록문화유산, 팔만대장경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역사문화기행은 우리나라 3대 사찰로 세계문화유산, 국보와 보물을 소장한 한국

불교의 성지 ‘해인사’와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영상테마파크 등을 탐방할 계획이다.

이번 탐방을 통해 대장경이 지닌 의미를 재조명하고 인류 공동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오는 16일까지 선착순 3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참가비는 3만원으로 입장료 및 자료집, 간식, 점심 등이 제공된다. 문의 062-234-2727. /김경민기자 kki@

**특이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사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타포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링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 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